

담양군, 보편적 복지사회 구현 위한 ‘2021 시책발굴 보고회’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에 선제적 대응 270여 건 사업 발굴 ‘담양식 그린뉴딜사업’ 등 지속가능 지역성장 정책 발굴 역점

담양군이 25일 민선7기 군정 각 분야의 정책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2021 시책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핵심가치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행정 여건에 대해 선제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발굴이 주된 내용을 이뤘다. 특히 정부주도의 한국판 뉴딜에 대응한 ‘담양식 그린뉴딜정책 연계사업’을 발굴하는 등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지역성장 정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진행됐다.

앞서 담양군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생

명준중과 자연보호를 핵심가치로 하는 생태도시 정책의 경쟁력을 확인하고 생태도시 정책의 생활화,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기 위한 ‘담양식 그린뉴딜정책 중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발굴된 사업을 통해 내년부터는 담양식 그린뉴딜정책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21년에는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등 마무리에 접어든 현안사업과 ‘고서 보존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월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담양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

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현안사업이 많은 만큼 추진 중인 사업의 완성도 높은 마무리와 신규 사업의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고회를 주재한 최형식 군수는 “2021년 군정운영의 핵심가치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보편적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단계적 복지정책 추진’,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민 우선주의 정책’, ‘투명성을 통한 공정가치 실현’ 등 내년 담양군이 나아가갈 주요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변화된 생활여건에 적극적 대응을 통해 행정이 지역발전의 선두에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종 행정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당부하는 등 경쟁



력 강화를 위한 조직 혁신전략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논의된 정책 운영방향과 사업들이 주민들의 소득과 행복을 키우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더 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흥군, 거동 어려운 장애인 추석 위문

소외계층 930여 세대...귀성 자제·명절 개인 위생수칙 준수 당부



장흥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사회복지시설,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930여 세대에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 방문은 이웃과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종순 군수는 바깥출입이 어려운 외상 장애인가정을 방문해 환자와 가족을 격려

하고 생활 가운데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귀성 자제 방침을 설명하고, 명절 기간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할 것도 당부했다.

정종순 군수는 “장애인들을 위한 경사로 설치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장흥군은 만들겠다”며, “코로나로 어수선한 시기지만 모두에게 추석이 갖는 풍성함이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전남복지재단, 복지 사각지대 ‘블루SOS’ 개발

누구나 손쉽게 지원 대상자 등록 온라인 통해 사용 결과까지 확인

전남복지재단은 기부자와 지원 대상자를 직접 연결하고 기부금 사용 후기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나눔플랫폼 ‘블루SOS’를 개발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블루SOS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복지 사각지대 규모가 급격히 늘었지만, 이웃의 어려운 사정을 접하기 어렵고 공공 지원과 민간지원 후원 연계가 쉽지 않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온라인 나눔공간이다.

재단은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의 복지지원이 연계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복지 사각지대 발견부터 지원까지 과정이 각각 분리돼 있었지만, 이 플랫폼을 통해 사각지대 발견 후 SOS 등록, 공공복지지원, 사례별 모금, 후기확인, 지역별 현황정보 제공 등이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복지시설 종사자나 도민 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해 온라인에 등록하면 읍·면·

동 주민센터에서 취약가구를 방문하거나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지원하고, 민간재원이 필요한 경우 모금을 추가로 진행해 지원한다.

재단은 모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남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모금창구를 개설했다. 기부 희망자는 온라인 송금을 하거나 CMS(Cash Management Service) 등록도 가능하다.

등록된 위기상황이 해결되면 블루SOS에서 후기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 내 기부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다.

모든 과정을 사이트에서 누구나 직접 확인하고 시·군별, 사례별 모금에 참여하고 처리결과까지 알 수 있다.

공식버전은 모바일 어플과 연동하고 카카오페이 등 손쉬운 결제 기능을 추가로 탑재할 예정이다.

신현숙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전남은 재정자립도는 낮은 데 비해 복지수요가 높아 상대적으로 복지지원이 늘 부족한 편이다”며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들과 지역기업, 출향인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무안 일로읍,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코로나19 예방 키트’ 전달

의료취약계층 100세대

무안군 일로읍은 지난 24일 코로나19 예방 키트를 제작하여 복지사각지대와 의료취약계층 100세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예방 키트는 마스크, 손소독제, 항균티슈, 항균비누, 손세정제 등 생활방역 물품으로써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손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일로읍 맞춤형복지팀 연락처를 넣어 제작하였다.

또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와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외출자제와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에 대해 자제 간호 인력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했다.

함경훈 읍장은 “코로나19 예방 키트가 감염병과 위생관리에 취약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감염병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
--	---	---